

##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불변하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말3:6

지난 몇 주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 성도의 기본 교리 강해, 무엇을 배웠는가? 하나님과 사람과 죄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 잘 알면 바르게 기쁘게 예배하고 큰 보상을 받는다. 학기말 시험, 죽어라고 공부해도 성적이 안 좋은 사람, 핵심을 알고 공부하면 고생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 우리는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열심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시는 하나님, 심지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불변하는 하나님, 불변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Immutable, unchanging God)  
목사의 책무: 하나님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려 주는 것, < >

### 성경 본문 개요

말3:6. 나는 주라 변치 않는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 선택, 가나안 땅, 그의 씨 약속(창17:4-8), 이삭 야곱 이집트 내려감, 이집트 탈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선민 약속, 하나님의 소유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 백성이 된 이래로 근 900년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푸대접함, 드디어 북 왕국 이스라엘 멸망(BC 721). 남왕국 유다 비빌론 멸망(BC 606-586),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다. 아무도 돌아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함, 그런데 BC 536년에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옴, 그런데 돌아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함,  
말라기서 1장(6-8): 더러운 빵과 적합하지 않은 짐승 희생 예물, 하나님의 말씀  
2장 7-9: 제사장들의 부패, 이혼(15), 3장: 주님의 것을 강탈함(8)  
우리 사람 같으면 이런 백성들 내버리고 다시 시작할 것 같은데 그리 하지 않고 참으심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3:6 나는 주라 변치 않는다. 그래서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았다.  
여기의 주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출3:13-14)

### 주 즉 여호와와의 의미(출3:13-14)

1.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신다. 사람은 부모가 존재하므로 존재한다.
2. 그분은 어느 누구 혹은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신다. 생각(롬11:33-34), 뜻(롬9:19; 엡1:5), 권능(시115:3), 계획(시33:10-11).
3. 사람은 I am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I am a boy. I am good... 오직 하나님만 I AM이라고 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한다(1분 전과 1분 후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우주도 변한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세상도 변한다. 이념 사상도, 유행도, 패션도, 사람의 무드도
4. 출3:14 후반부의 'I AM'은 주어이다.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th sent me unto you." (1)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 (2) 하나님은 절대적인 인격체다. (3) 하나님은 개인들과 상관하신다(me). (4)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메신저로 삼아 사람들에게 보내신다.
5.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목자다. 문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 resurrection, the door, the shepard

###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신다(Immutable)의 의미: 그분은 그분 자신에게서 변한 적이 없다. 그분은 항상 그분이다. 존재의 끝이 없다. 정륜(구약과 신약)은 변해도 그분의 속성은 불변이다. 사람은 나쁜 데서 좋은 데로 변하든지 혹은 그 반대로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이 없다.

어떤 점에서 불변: 그분의 본성, 완전함, 목적, 약속들, 선물들에서

왜 야곱의 아들이 소멸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약속(창17:4-8), 불변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영존하는 약속 가능

왜 이스라엘이 1948년네 다시 저 땅에 나라를 세웠는가?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영원히)

약1:17 좋은 선물은 그분에게서 나오므로 악이 그분에게서 나올 수 없다. 그분의 생각, 계획, 본성에  
불변, 거룩하므로 악한 데로 변할 수 없다. 빛이므로 어둠이 될 수 없다.

1. 변하려면 시간의 순서대로 변해야 한다. 즉 변하기 전이 있고 변한 뒤가 있다. 즉 시간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으로 시간의 한계 밖에 계신다(사57:15). 어제, 오늘 내일이  
그분께는 같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2. 무엇이 변하면 좋게 변하든 나쁘게 변한다. 무언가가 추가되거나 제거되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므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 수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3.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군가 생각을 바꾼다. 알지 못하던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므로 새로운 정보나 환경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느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  
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민23:19).
4. 사람은 변한다, 썩어 없어진다. 영영호걸이 없다(히1:10-12).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효과

복음을 보라. 1. 사람은 죄인이다.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불변하는  
거룩하심에 따라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3. 그런데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이 있다. 4. 그래서 처벌을 요구하는 거룩하심과 용서를 요구하는 사랑, 이 두 가지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실행, 성육신,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에게 없어서 죄가  
되게 하시고 그분에게 정죄의 심판을 가하심, 이를 통해 불변하는 구원 계획 완수: 거룩함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동시에 만족됨, 5. 그분이 불변하므로 그분의 구원 방법도 동일하다: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구원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구약의 경우 믿고 신뢰하면 어린양의  
피를 흘리는 믿음의 행위를 한다. 신약 어린양이 이미 흘린 완전한 피를 믿고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의 불변함을 보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기록으로 주심, 왜: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며 변개될 수 없다. 한두 구절이라도 소멸될 수 없다.  
불변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회개, 사람이 회개하면 - 즉 뜻을 바꾸어 행동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을 나타내면 - 항상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므로'

롬8:1 정죄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므로

롬8:28,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므로

롬8:39: 어떤 창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므로

예수님의 초청(마11:28). 안식을 주신다. 롬5:1 평안을 누린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므로

고전15:52-53. 우리는 죽는다 해도 반드시 다시 부활한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므로

계21:4, 다시는 죽음과 고통이 없다. 왜, 하나님이 불변하시므로

#### 불변하는 하나님의 경고(히12:25-29)

하나님이 세상을 흔드시며 심판하실 때가 다가온다, 그분의 손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통이다(히10:31).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경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을 아는가?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가?